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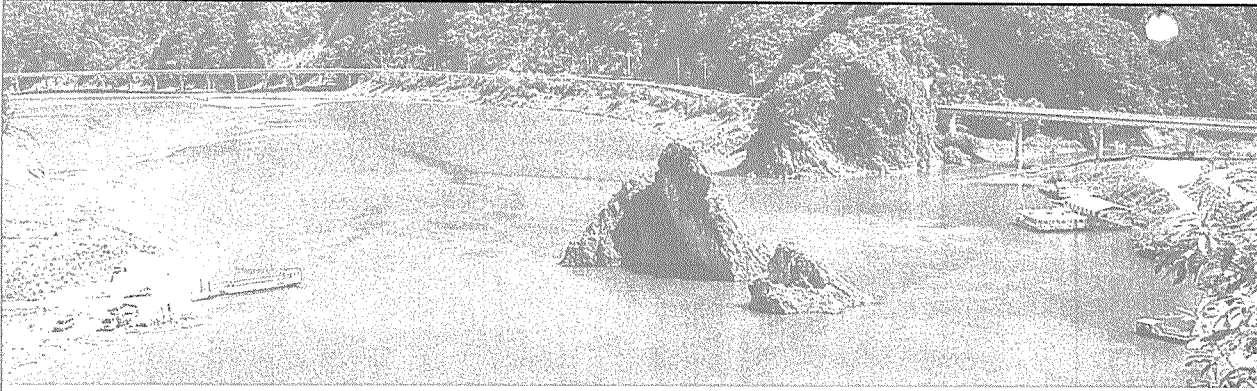
은달산성에서 바라본 소백산

강바람 산바람에 내 몸을 맡긴다. 더위 씻어주는 단양팔경

글·사진 김 맑 음 <여행작가>

단양땅은 볼거리가 참 많은 고장이다. 이 북 받은 땅의 기운은 ‘단양팔경’에 다 모아져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여행자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단양팔경은 예나 이제나 그 모습 그대로이다. 물안개 자욱히 피어오르는 충주호 상류에 자리한 단양은 언제 찾아도 새로운 풍취를 보여주지만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즈음에 딱 맞는 여행지라 할 수 있다. 강, 호수, 산, 계곡은 저마다 새 옷을 갈아입고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단양팔경의 1경은 도담삼봉이다. 싯푸른 남한강 가운데 무슨 장군처럼 떠 있는 세 개의 봉우리는 기개가 넘친다. 팔경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는 이 커다란 3개의 봉우리는 저마다 이름을 갖고 있다. 가운데 봉우리는 장군봉(생긴 모습이 장군 같다 하여 붙은 이름), 왼쪽이 처봉(암전하게 돌아앉은 모양), 오른쪽은 첩봉(교태를 부리듯 야릇하게 생겨 붙은 이름)이다. 옛 사람들은 장군봉의 허리쯤에 걸쳐 있는 ‘삼도정’이란 육각정자에 올라 석양빛을 바라보며 시름을 달래기도 했다. 삼봉은 원래 강원도 정선군의 삼봉산이 홍수 때 떠 내려와 지금의 도담삼봉이 되었다고 한다. 얼떨결에 도담삼봉을 얻은 단양에서는 그후 매년 정선군에 세금을 냈다고 하는데, 조선 개국 공신 정도전이 “우리가 삼봉을 정선에서 떠내려 오라 한 것도 아니요, 오히려 물길을 막아 피해를 보고 있어 아무 소용이 없



는 봉우리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으니 필요하면 도로 가져가라”고 한 뒤부터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정도전 선생의 호인 삼봉(三峰)이 도담삼봉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찍이 단양군수를 지냈던 퇴계 이황 선생은 도담삼봉을 바라보며 이런 시를 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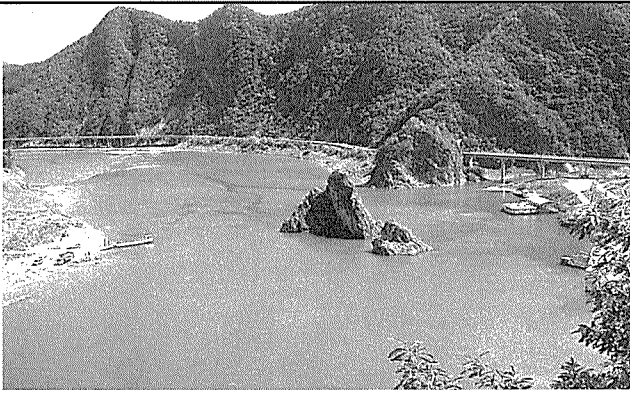
산은 단풍잎 붉고/물은 옥같이 맑은데/석양에 도담삼봉엔/저녁 노을 드리웠네./신선의 뗏목을/취벽에 기대어 잘 적에/달빛 별빛 아래/금빛 파도 너울진다.

이른 아침 호수를 넓게 덮은 물안개와 해질 무렵 황금빛 노을은 여행자들의 마음을 환상으로 이끈다. 도담삼봉 앞에는 선착장이 있어 이곳에서 유람선을 타면 무지개 모양의 석문(2경)을 비롯해 거북 모양의 바위 봉우리인 구담봉(3경)과 대나무순 여러 개를 묶어 세운 듯한 옥순봉(4경)을 둘러보는 운치 있는 수상 관광을 즐길 수 있다. 선착장에서 상류 쪽으로 200여 미터 올라가면 볼 수 있는 석문은 2개의 석주가 큰 바윗돌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인데, 생김새가 워낙 기묘해 신비감을 자아낸다. 석문 옆으로는 긴 담뱃대를 물고 술병을 들고 있는 듯한 형상의 ‘마고할미 바위’가 보이고, 상류로 조금 더 올라가면 자라 모습을 정교하게 조각해 놓은 듯한 ‘차라바위’를 볼 수 있다. 물 속에 비친 바위가 거북 모양을 닮았다는 구담봉은 충주호 유람선 관광 가운데 최고의 절경을 보여준다. 구담봉을 돌아서면 왼쪽으로 절개 있는 선비의 모습을 한 옥순봉이 그 자태를 드러낸다. 우뚝 솟은 봉우리와 암벽의 경치가 사람들의 혼을 빼놓을 만큼 아름답다.

단양팔경 중 5(상선암), 6(중선암), 7경(하선암)은 월악산 자락에서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단양천을 거슬러 올라가며 있다. 상선암-중선암-하선암을 잇는 계곡(삼선구곡(三仙九谷))은 때묻지 않은 천혜의 생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거슬러 올라가노라면 신선이 된 기분이다. 삼선구곡을 이루는 첫 경승지인 하선암은 둥글고 커다란 바위가 덩그렇게 엹혀 있는 모양으로 그 형상이 미륵 같아 ‘부처바위’라고도 불린다. 또한 신선이 노닐던 바위라 하여 ‘선암’, 물속에 비친 바위가 마치 무지개 같이 영롱하여 ‘홍암’이란 이름도 갖고 있다.

중선암은 삼선구곡의 중심지로 흰색의 바위가 층층대를 이룬 모습이 특이한데, 바위 위로 흐르는 맑은 물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더위가 싹 가신다. 쌍용이 승천하였다 하여 ‘쌍룡폭’이라고도 하며 효종 때 김수증 선생은 이곳의 웅장한 바위를 보고 ‘옥염대’, ‘명경대’란 이름을 붙여주었다.

조선 명종 때 우암 송시열의 수제자 수암 권상하 선생이 이름을 지었다는 상선암은 작고 올망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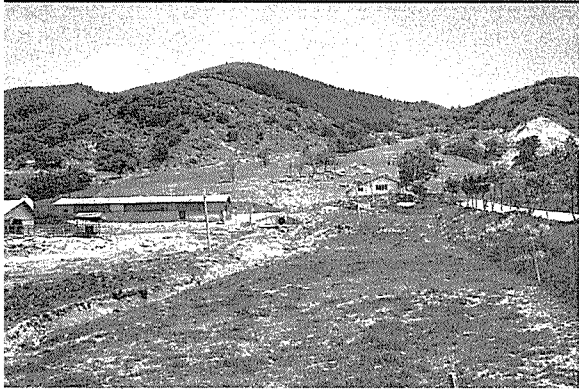
도담삼봉

한 바위들이 서로 모여 있는 모습이 색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계곡의 맑은 물과 한쪽에 걸쳐 있는 기암괴석, 구름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는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하다.

마지막 8경인 사인암은 맑은 계류와 깎아지른 바위, 그리고 푸른 소나무의 절묘한 조화가 단연 압권이다. '사인암'은 역동 우탁 선생이 이곳에서 벼슬을 지낼 때 지은 이름으로, 절벽에 새겨진 친필이 눈길을 끈다. "뛰어난 것은 무리에 비할 것이 아니다. 홀로서도 두려운 것이 없고 세상에 은둔하여도 근심함이 없다." 선인들의 친필은 바위 절벽 곳곳에 새겨져 있다. 아래쪽 평평하고 너른 바위에 장기관과 바둑판이 새겨져 있다. 누가 언제 새겨 놓았는지 알 수 없지만 고려 말 이후라고 전해온다. 당대 최고의 화가 김홍도는 10여 일간 이 바위를 바라보며 눈에 익혔지만 끝내 붓을 들 수 없었다고 한다. 김홍도는 이곳을 다녀간 후 1년여가 지난 뒤 옛 기억을 되살려 '사인암도'를 그렸다. 그러나 기억에 의존해 그린 그림은 끝내 참 모습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다. 사인암 주변에는 넓은 주차장과 민박집이 많아 며칠 폭 쉬어가기 좋다.

사인암을 보고 단양~예천 간 573번 지방도로를 따라가면 소백산 자락 우뚝한 곳에 싱그러운 초원이 펼쳐진다. 소백산관광목장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목장과 관광을 결합시킨 이색명소로 숙박시설, 연수시설, 식당, 수영장, 특산물 판매장, 통나무집 방갈로, 낚시터, 양어장 따위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부대 시설인 식당에서는 목장에서 직접 생산한 질 좋은 한우고기를 맛볼 수 있다. 가웃이 펼쳐진 초원에서 소떼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은 낭만 그 자체이다. 백두대간 줄기에 속하는 목장지대는 앞산 촛대봉(해발 995m)과 뒷산 옥녀봉(1,080m) 사이에 안겨 있는데, 촛대봉에 오르면 멀리 안동댐과 낙동강이 보이며(왕복 1시간40분 소요), 옥녀봉에선 월악산 주봉이 어슴푸레하다. 망원경이 있으면 충주시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문안골로 하산하여 오른쪽으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조선시대 민수용 도자기의 집산지, 방곡도예촌이 나온다. 17세기경부터 백자와 분청자기를 생산해온 도예촌에는 현재 10여 개 도요가 작업 중이며 방문객이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고, 도자기 제작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작업장 및 교육시설을 갖춘 도자공예교육원도 들어섰다.

단양 여행은 이것으로 대충 마무리되었다. '대충 마무리되었다'고 표현한 것은 단양 일대에는 아직도 볼거리 배울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태고의 신비를 보여주는 고수동굴, 천동동굴, 온달동굴, 노동동굴 등은 동굴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사랑이 깃든 온달산성(사적 제 264호)은 우리 역사의 깊이와 애환을 얼추 더듬어보게 해준다. 온달산성으로 가려면 이른바 '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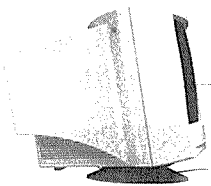


여행자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단양팔경은
 예나 이제나 그 모습 그대로이다.
 강, 호수, 산, 계곡은 저마다 새 옷을 갈아입고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소백산 관광목장

의 드라이브 코스 10선'에 드는 '영춘 가는 길'을 타야 한다. 영춘면은 단양군 동북단과 강원도 영월군과 어깨를 맞대고 있는 한적한 시골이다. 영춘면 백자리에 들어선 천태종 본산인 구인사는 구도자의 울골은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다. 절집이 주는 경건함과 여유로움에 시골벽적함까지 곁들여져 별난 느낌을 받게 된다.

여행때모 (지역번호043) = 영동고속도로 - 남원주 - 중앙고속도로 - 제천 - 5번국도 - 단양. 부산 - 대구 - 중앙고속도로 - 군위 - 의성나들목 - 서안동나들목 - 예천 - 상리 - 단양. 단양행 기차편(청량리역에서 새마을호, 무궁화호가 하루 11회 운행)이나 고속버스(1일 25회, 2시간 30분) 이용. 부산에서는 구인사행 시외버스(하루 3회 운행)나 단양행 열차(하루 1회 운행)를 타면 된다. 단양읍 - 도담삼봉 - 도담삼거리(5번 국도) - 상방삼거리(36번 국도) - 장회나루 - 원대삼거리(655번 지방도) - 옥순대교 - 남제천나들목(중앙고속도로). 단양읍에서 온달 관광지(1일 11회 운행), 구인사행(1일 17회 운행) 시내버스 이용. 북단양나들목 - 매폍 - 덕천교삼거리(59번 국도) - 군간교(595번 지방도) - 온달 관광지, 충주 - 36번 국도 - 단양 - 5번 국도 - 장림 - 573번 지방도 - 울산리 - 소백산관광목장. 신단양 → 충주 유람선 왕복 2만5000원, 편도 1만6000원. 장회나루까지 왕복 1만원, 편도 5000원. 신단양나루(423-8615). 단양읍에 단양관광호텔(423-7070), 이화파크텔(422-2080) 등 장급 여관이 다수 있다. 소백산유스호텔(421-5555)이나 단양유스호텔(422-6000)을 이용하면 훨씬 저렴하다. 예약 필수. 소백산관광목장 통나무방갈로(18평):5인1실 80,000원, 여관:4인1실 40,000원, 본관건물 2층 2인1실 30,000원, 본관건물 3층 2인1실 20,000원. 단양군청 문화관광과(420-3544), 단양관광안내소(420-3545), 방곡도예원(422-5010), 장회 유람선(422-1188), 단양시내버스터미널(422-3214). 단양군 홈페이지(www.dy21.net) 참조.



진홍화 Homepage 이용안내

<http://www.koema.or.kr>